



70년대 도시 빈민 적나라하게 폭로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겨울밤은 잠 깊지요. 문득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소원했던 누군가에게 편지라도 쓰는 밤이 되면 어떨까요? 이메일이나 전화보다 왠지 손수 쓴 편지를 받고 싶어지는 겨울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마음이라도 서로 따스하게 나누는 정이 정겹다리인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름다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합하는 마음이 저절로 삶의 온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고비'에 꽂힌 오래된 편지를 꺼내서 읽다보니 '건방'을 지내고 있네요. 자다 말고 일어나 '애만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으니 옛정이 더욱 솟아나네요.

건방: 잠을 자지 않고 뜯는으로 새우는 밤.(월궁 선녀를 생각하고 달 아래서 건방을 새운 모양이요.) <홍명희, 임격경>

고비: 편지 따위를 꽂아 두는 물건. 종이 따위로 주머니나 상자처럼 만들거나 종이로 '나'나 'X'자 모양으로 오려서 벽에 붙여 만든다.

애만 소리: 억울하게 듣는 말이나 꾸중.(괜히 죽은 송장한테 주사를 놔다가 정말 죽었다고 애만 소리를 듣게요?) <재민식, 탁투>

막돌: 아무렇게나 생겨 붙은 돌.

공글리다: 땅바닥 따위를 단단하게 다지다. 일을 확실하게 매듭짓다.

인명옥(사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조희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0년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때, 서울의 어느 재개발 지역(나원구 행복동)을 배경으로 하는 조희재의 대표작,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는 도시 빈민 삶 속에서의 고통과 좌절을 사화 고발적, 은유적, 우화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1976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이 작품은 같은 제목의 연작 12편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중편 소설로 당시 커다란 문화적 반향을 일으키며 1970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도 파이프 수리공으로 생계를 잇는 '난장이' 아버지와 인쇄소 제본 공장에 다니는 어머니, 우등생이었던가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인쇄소에 다니는 영수와 영호, 그리고 막내 영희. 이렇게 다섯 식구로 이루어진 '난장이' 가족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실낱같은 기대감 속에서 천국을 꿈꾸지만 통장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 계고장을 받는다. 철거는 간단하게 끝나 버리고 그들의 손에 아파트 '딱지'만 주어진다. 그러나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비가 없는 행복동 주민들은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을 더 받고 거간꾼들에게 입주권을 팔아서 번두리나 시외로 세를 얻어 간다. 하지만 영수네는 명화네에서 빌

린 돈을 갖기 위해서 입주권 값이 조금이라도 더 오를 때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 값이 뛰어들고, 결국 영수네도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러나 명희 어머니에게 전세를 갖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그날 '난장이' 아버지와 막내 영희는 집을 나간 후 소식을 없다. 영수와 영호는 아버지를 수소문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세 식구만 이사를 떠난다.

한편, 영희는 자기네 입주권을 시간 부당산 투기업자인 젊은이를 따라간다. 그러나 투기업자에게 마취 당하여 손절을 빼앗긴 영희는 투기업자가 자기에게 했듯이 그의 얼굴에 마취를 하고 가방

가난한 삶의 고통과 좌절 나타내 1970년대 작품 중 큰 반향 일으켜

속에 있는 입주권과 돈을 가지고 행복동 동사무소로 향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떠난 뒤다. 영희는 이웃에 살던 신에 아주머니에게서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했다는 것과 가족들은 성남으로 이사갔다는 말을 듣는다. 꿈속에서 가족들을 만난 영희는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약당은 죽어 버려"라고 소리친다.

전혀 낙원이 아니고 행복도 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의 삶

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도시민들의 아픔을 그려 자본주의의 모순과, 재개발 사업의 실상, 그리고 권력기관의 횡포 등을 파헤침으로써 1970년대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도시 빈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난장이'와 '달나라' '팬지꽃' 등의 상징적 장치, 사회적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데 환상과 현실의 교묘한 배합, 상징적 구조물의 중첩, 시점의 잦은 이동, 연작 형태의 다양한 시각 확보 등 문학적 기법의 새로움을 찾아보며 읽어보세요. 작가의 실험 정신도 엿볼 수 있으며, 사회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있어 항상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난장이'로 상징화되어 있으며, '난장이'는 신체적 왜소함을 넘어서 사회적 신분의 왜소화를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못 가진 자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필박받으면서도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요, '난장이'가 꿈꾸는 행복한 사회 역시 서로간의 사랑과 도덕성이 지켜지는 사회죠.

이 작품에서 지성이라는 청년은 '난장이' 아버지의 행동을 결정지어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는 아버지에게 이 땅은 죽은 땅이라며, 달나라로 가야한다고 말하죠. 이 말에 아버지는 괴로울 때마다 달나라로 작은 쇠공을 쏘아 올리죠. 하지만 그 공이 지구로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난장이'는 가능한 한 달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끝까지 높은 곳에 올라 날다가 떨어져 죽는데 '난장이'의 비상은 곧 추락으로, 세상은 비상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비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달나라는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인 것이죠.

인명옥(사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육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완벽해지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쁘고, 도무지 못하는게 뭘지 모를 아이가 있어요. 친구를 보면 저도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친구를 하고도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왜 그 애처럼 완벽해질 수 없는거죠? (ID:우떡해~)

마음도 쉬어야 넓고 부드러워 집니다.

아주 잘나보이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대개 주눅들게 마련입니다. 글 쓴 친구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제각각 솔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얼른 보기에 완벽할 뿐이지요.

글 쓴 친구는 아직 뭐든 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조금씩 생각해 보고 조금 천천히, 넓게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은 그 친구가 훨씬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친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요지는 쉬엄쉬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잘하겠'다는 정성입니다. '더 잘하겠'다는 욕심입니다. '사랑한다'는 아름답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허전합니다. '감사합니다'는 편안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는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 지평선 같았던 좋았던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까. 일도 사랑도 감사도 늘 평평하고 잔잔하여 멀리서 보는 지평선 같기를 바랍니다. 아득한 계곡이나 높은 산 같은 마음이 아니라 들끓음이 넘쳐나고 순박한 마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른 마음입니다. 앞만 보고 오를 때는 발끝만 보이지만 멈추어 서서보면 내 앞에 지평선이 펼쳐집니다. 마음도 쉬어야 넓고 부드러워 집니다.
(금산사 어린이불교학교 법안님)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 특기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 1주: 목통증, 두통, 신경병, 안면마비, 어지럼증, 목덜미가 벗겨짐
- 2주: 심장, 폐, 간장, 위장, 신장, 비장, 위장장애, 소장
- 3주: 변비,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허벅지근통, 팔꿈치, 정맥류
- 4주: 좌골신경통, 신장, 방광, 생식기장애
- 5주: 척추관 협착, 척추관 협착, 척추관 협착

수련안내

- 기간: 2007년 12월 11일부터 (4주간)
- 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주말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부산연수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수련비용: 40만원 (숙성반)
- ※ 협회장 직접 전수반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분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불자님께 드리는 글

일월산 관법사에서는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들을 위하여 고신 끝에 청정교를 경복 영양천의 오지에서 생산된 자연산 돼지감자와 약나무만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경험으로 정성껏 다려서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들께서 고민 없이 복용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 **돼지 감자의 효능**
 - ▷ 당뇨(천연 이눌린)에 탁월한 효능 및 강장식품
 - ▷ 각종 성인병 예방 및 고혈압, 위장, 대장운동 촉진으로 변비에도 효능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됨)
- **햇겨나무의 효능**
 - ▷ 간경화, 지방간, 간장, 대장염 질환예방 및 치료
 - ▷ 음주 후 간, 장, 알콜성 만성피로 해독 효능
- **복용방법**
 - ▷ 식 전 후 1봉씩 1일 2회 복용함
 - ▷ 데워서 드시면 좋으나 차게 드셔도 무방함
 - ▷ 1개월 복용 4만원 (택배비 본인 부담임)

입금: 계좌번호 (우체국 701151-01-001297) 예금주 관법사
주문전화: 054)682-5808
관법사 총무 성덕 합장

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도모 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송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인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 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참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종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난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주머니 속의 심경 출간!!!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 중에서도 절제된 경으로 으뜸가는 경이다. 그래서 선승(禪宗)도 그 뜻을 따랐다. 이 선승이 읽는 이들을 돈오하게 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주머니 속의 심경 서문 중에서...

순바닥 만한 책이니 주머니 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소절씩만 읽고 참구하십시오. 격의를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학도 밝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제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02-3494-0122 www.zenparadise.com